

설 앞두고 주문 폭주, 매하구 스마트 농장 ‘풀가동’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명절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하구시 우심정진 화미식장 스마트 농장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매하구시 우심정진의 주요 투자 대상인 이 스마트 농장은 음력설 기간에도 생산과 작업을 지속하며 가동률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스마트 양계장 내부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며 자동 설비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고 일꾼들은 질서 있게 출하전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 화미사육장 책임자 두금휘는 “음력설이 가까워질수록 시장 수요가 더욱 활발해진다.”며 현재까지 농장에서는 총 두차례에 걸쳐 백우계(흰 깃털 닭) 120만마리를 성공적으로 출하하여 120만원 이상의 리운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사육 속도를 유지한다면 올해 목표인 연간 400만마리 출

하량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3만 5,000평방미터의 사육 기지에는 10여개의 표준화된 계사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지능형 환경 제어 시스템이 백우계의 성장 주기에 따

라 자동으로 환기 및 조명 수치를 조절하며 프로젝트의 지능화, 표준화, 생태화를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기술원 손승호는 “표준화된 사육 방식으로 닭고기 품질이 안정되었



석문진, 특색재배산업으로 향촌 진흥 새 화폭 그린다

최근년간 안도현 석문진은 천혜의 자원에 힘입어 하우스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딸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재배 분야에 집중해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이는 등 토지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 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내고 있다.

과일 향기 가득한 특색재배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다. 딸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하여 비닐하우스 안은 과일 향기로 차넘친다.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다.

포도 수확이 끝난 후 농가들은 또 유휴 포도하우스 자원을 활용해 하

우스 닭사육 모식을 발전시키면서 자원의 재활용을 실현했다. 현재까지 석문진은 동심채집원, 석문철도 구딸기원 등 2개의 딸기재배기지과 유수천촌포도채집원 1개를 갖고 있는데 해마다 1,500키로그램의 포도, 4,000키로그램의 딸기를 수확하고 1,000마리의 닭을 사육하여 일당 200여개의 닭알을 생산할 수 있다. 석문진은 ‘재배 + 사육’ 립체 발전 모식을 통해 수입 증가 경로를 확장하고 과일재배산업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농가들이 치부의 길에 들어서도록 노력했다.

석문진 북산촌 상황재배기지의 상황버섯은 높은 약용 및 경제 가치에 힘입어 특색재배의 ‘주목받는 인기

대상’으로 떠올랐다. 석문진은 적합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 의탁해 정확하게 상황버섯 특색재배를 계획하고 하우스 상황버섯 양식 산업을 발전시켰다. 지금까지 25채의 철골하우스를 건설하고 10만그루의 상황버섯균단을 양식, 배치했다. 대상건설이 완공된 후 상황버섯균단의 재배 규모는 25만그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상은 현지 농민 200여명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했고 인당 수입을 4,000여원 증가시켰으며 루게로 80여만원의 소득을 가져다주어 경제적 수익과 생태적 효익의 이중 혜택을 실현함으로써 향촌 진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다. 현재 제품은 성내 시장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어 주문이 이미 정월대보름 이후까지 밀려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처리구역에서는 닭분뇨 저장조와 오수 처리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기술원 양장희는 “생물 안전 관리 체계로 사육부터 폐기물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폐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은 지역 생태농업의 모범사례로 자리잡았다.”고 소개했다. 농장은 미생물과 효소를 활용해 닭 분뇨를 발효하여 유기비료로 전환하고 처리된 오수는 농경지 관개에 재사용함으로써 축산 폐기물의 자원화 활용을 실현하고 있다.

프로젝트 주요 책임자 조명희는 “음력설 연휴 기간에도 농장은 환경보안 감시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모든 과정이 친환경 사육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능력과 생태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룰 것”이라며 “매하구시에 투자하기로 한 것은 이곳의 실질적인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동지역 기업가의 투자로 건설된 이 프로젝트는 통화운전목축업과의 심층 협력을 바탕으로 2024년 9월 착공되었다. 착공후 우심정진 당위와 정부는 32건의 행정절차를 처리하고 교통, 전력 공급, 통신 등 핵심 난제를 해결해주었다.

조명희는 “토지 정리부터 설비 설치에 이르기까지 향진 사업일꾼들이 직접 찾아와 수요를 파악하고 생산 보장 상황을 점검하며 외부 투자자들에게 진절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길림성 비즈니스 환경이 이전 향진에까지 확장되었으며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하고 불필요한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서비스 원칙이 기업의 생산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길림일보

리론에서 현장으로 연변대학, 지역과의 협력으로 향촌 진흥에 노력

일전 연변대학 공공관리석사(MPA) 교육센터에서는 룡정시 개산툰진 광소촌을 방문하여 정책 해설 및 향촌 진흥 관련 전문 연구 조사를 했다. 이번 방문은 심만근교수와 공공관리전업 석사과정 학생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학의 학교-지역 협력 인재 양성 모식을 한층 발전시켜 실천 중심의 응용형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도로 되었다.

실천 활동중 석사과정 학생들은 ‘리론이 기초에 뿌리내리고 실천으로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신념을 갖고 마을의 기본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이들은 촌 당원 간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해하기 쉬운 언어로 당의 방침과 정책을 설명하고 국가의 발전 방향과 정책 혜택이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렸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새로운 시대의 발전 흐름 속에서 더 큰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산업 발전, 정책 집행,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은 마을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응원을 전했다.

이번 사회 실천을 통해 석사과정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나 농촌 현장에서 학문과 지식을 사회에 기여했다. 서면 리론을 넘어 실천을 통해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주민들과의 교류 속에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한 동시에 향촌 진흥에 기여하려는 청년학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활동은 학생들에게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학교-지역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과 농촌 진흥 지원의 의미를 보다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김명화기자

지난해 농촌 온라인 소매판매액 3조원 돌파... 전자상거래 ‘한몫’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 나라 농촌 온라인 소매판매가 성장세를 보였다.

일전 상무부에 따르면 2025년 농촌 및 농산물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각각 3조원, 7,833억 1,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7%, 9.9% 증가한 수치다.

농촌지역 상품 및 서비스 소비도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역에서 가전제품, 보상교환판매와 휴대전화 등 신제품 구매 보조금 정책을 통해 4,823만대가 팔려나가며 매출액 1,586억원을 창출했다. 같은 기간 현역 서비스 판매액은 9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농촌 전자상거래 역시 빠른 발전을 보였다. 2025년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진행된 농촌 지원 방송은 연간 400만회 이상으로 조사됐다. 농특산물 판매량은 100억건을 돌파, 하루 평균 2,000만건 이상의 주문이 발송됐다.

농촌지역 물류 네트워크도 보완돼 지난해 현금 물류배송센터 348개, 향진 택배 물류 거점 562개가 건설됐다. 이로써 중국의 모든 현역이 100% 물류배송센터를 갖추게 됐다.

/ 신화사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새해 축복을 전하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행복 평안과 위대한 조국의 번영창성을 축원

▶ 1면에서

습근평은 거리 풍경을 살펴보고 도시 갱신 상황에 대한 소개를 청취했다. 그는 또 도향촌 제과점에 들어가 제과의 종류와 특색을 료해하고 제과 현장 제작을 관람하며 가게 주인에게 북경의 전통 브랜드를 잘 전승하고 발전시키기를 희망했다.

음력 작은설을 맞아 룡복청사 앞의 신촌시장은 많은 시민과 유람객들을 끌어들이었다. 습근평은 다양한 설맞이 용품 부스를 흥미진진하게 둘러보고 현장 군중들과 친철하게 교류했다. 그는 어린시절 룡복사를 여러번 방문했던 광경을 모두에게 기쁘게 이야기했으며 몇가지 특색 식품과 문화창의제품을 구입했다.

거리에서 경서 태평고 공연이 흥겹게 펼쳐지고 있었다. 총서기가 도착

하자 현장의 군중들은 열정적으로 환호하며 안부를 물었다.

습근평은 북경 시민들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은 북방의 ‘작은설’이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작은설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특별히 찾아왔다. 이곳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기쁨이 넘치며 설명절 분위기가 짙고 설맞이 용품이 충분한 것을 보니 매우 기쁘다. 설날은 백성들에게 큰일이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민생 보장과 안전생산을 철저히 잘 맡겨주어 광범한 인민대중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도록 확보해야 한다.

고찰 기간 습근평은 북경시 당위와 정부의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제반 사업에서 이룩한 북경의 성과를 충분히

히 긍정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5.5’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기반을 다지고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관건적인 시기이다. 북경은 당중앙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당중앙이 확정한 도시 전략적 위치를 띠며 경제, 사회 발전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솔선하여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결정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전국에서 시범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북경은 도시의 전략적 위치와 경진기 협동 발전에 힘입어 고품질 발전 방향을 일층 확고히 수립하고 증가와 감소, 보장과 압축을 병행하는

가운데서 경제의 질적인 효과적 향상과 광적인 합리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 경진기 협동 발전을 추진하는 ‘핵심고리’인 북경 비수도 기능 분산을 틀어쥐고 증량 통제와 기존량 해소를 결합, 병행해 분산과 발전의 유기적 통일과 상호 촉진을 실현해야 한다. 북경(경진기) 국가과학기술혁신중심을 확장하는 기회를 다잡아 천진, 하북과의 협력적 혁신과 산업 협력을 강화하여 경진기 협동 발전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심화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의 일체화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적 융합을 강화하며 신질생산력을 힘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현대 서비스업을 적극 발전시키고 풍부한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여 문화, 상업, 관광,

체육, 전시의 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대도시가 대규모 교외지역을 견인하고 대규모 교외지역이 대도시를 봉사하는 것을 견지하며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계획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련동 발전, 융합 발전, 조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개혁을 가일층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제도형 개방을 확대하여 전국에 복제 및 보급 가능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반드시 보다 높은 표준과 보다 실질적인 조치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 당의 정치 건설을 두드러지게 잘 틀어쥐고 강력한 정치적 능력을 단련해야 한다. 인재 선발, 등용의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우수한 인재를 선별하여 각급 지도부에 배치해야 한

다. 학습 양성을 강화하고 간부대오의 현대화 건설 기량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당원과 간부들이 정확한 치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천, 인민, 력사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실질을 힘써 창조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기풍을 바로잡고 규율을 엄숙히 하며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계속하여 심화시키고 부패할 엄두를 못 내고 부패할 방법이 없으며 부패할 생각이 없게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며 부패가 자라는 토양과 조건을 없애고 기풍이 청렴하고 올바른 정치생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가 고찰에 수행했다.

하립봉 및 중앙과 국가 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고찰에 수행했다.